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 교우 : 박옥하 (헬시바 목장)
2. 오늘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세례·입교예식이 있습니다. 입교자는 고주몽, 신위형, 황제(이상 3명)입니다.
3. 미리 광고한 것처럼 전도대상자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은 12월 둘째 주일에 가집니다.
4.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 담당은 박성대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김화현 집사님입니다.
6. 11월 26일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미리 공지한 향촌직 직분자들을 세우는 신임투표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안수집사 후보자 : 신동기, 오승현(이상 2명), 안수권사 후보자 : 오효근, 김정미, 이영선, 최윤정, 신경미(이상 5명)입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예배기도(오전)		오승현 집사	김환엽 집사	박성대 집사	신태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신경미 권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오효근 집사 조선경 집사 금재구 집사	김민자 집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11/4)	주사랑목장(11/11)	에덴목장(11/18)	갈렙목장(11/25)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수능고사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오영은, 허성경)
5. 새로운 향촌직 직분자들을 세우는 신임투표를 위해서
6.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양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교독문 114번(이웃사랑) 다같이
*경배찬송	29장(통 29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0장(통 98장) 다같이
대표기도	김환영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13:1-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선택의 문제' 허영진 목사

성례전(입교예식)

선언	집례자
서약	집례자와 입교후보자
기도	집례자
선포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금  
의  
말씀



그는 사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  
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편 3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250장 (통 182장)	다같이
기도	최순애 집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삼상 18:1-4	다같이
말씀선포	'마음과 하나가 되어'	허영전 목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220장(통 278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1-3 '그 후에 예수께서'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출 32:7-4 '기도의 능력'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55:1-11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누군가와 함께’

곰게 물들었던 가을 낙엽도 어느덧 끝물이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몸을 가누기조차 부자연스럽다. 교회마당으로 향한 계단을 내려오다 지천에 널 부러진 낙엽들과 마주쳤다.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이곳 저곳을 뒤굴며 어지간히도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간다. 떨어져 흩어진 낙엽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쓸고 또 쓸어 담아 보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확 끌어 담고서는 보란 듯이 태워보고 싶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부득이 남선교회에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남선교회 집사님들과 낙엽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교회 주변은 차츰 깨끗이 정돈되어 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모두에게 진한 감동으로 남는 시간이 되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칙센트 미하일 교수가 쓴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이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행복에 관한 명확한 정의다. “행복이란 누군가와 함께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 내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곧,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혼자서 지내지 않는다. 누군가와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 소소한 일에 감동을 받는 것은 이런 관계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다. 나를 넘어서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타인이 오류이 보이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고맙다. 교회가 원체 동네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귀찮을 법도 한데, 토요일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 나와 청소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게다가 주일마다 맡은 순서에 따라 온 성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로움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영적 잔치에 이은 육적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헌신을 통한 수고로움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마치 나무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듯이 말이다. 그런데 어쩌지. 지난 주 말끔히 치웠던 교회마당에는 이번 비바람으로 인해 다시 낙엽으로 가득 채워졌다. 뭘 걱정할까 보냐. 다시 부탁하면 될 일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어서, 그래서 든든하다.

Written by 허영진